■확 달라진 정부합동감사

적발 위주서 '컨설팅형' 감사로

수완지구 풍영정천 건천화 주민 민원 중재 등
기업 불편 해소·지자체 각종 현안 해결 힘 써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감사가 기존 지적·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돕는 '컨설팅형 감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정부합동감사(반장 김경희)를 통해 평동 제2차 산업단지 부지 문제, 수완지구 풍영정천 건천화(乾川化) 등 시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정부합동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반은 '기업불편해소 전담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광주시 홈페이지에 '기업불편 온라인 신고센터' 배너를 개설해 민원을 접수하는 등 '컨설팅형 감사'를 선보였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평동 2차산단과 호남고속철도(KTX) 일부 구간의 중복으로 차질을 빚어오던 산단조성 사업에 활력을 얻게 되는 의외의 성과를 얻었다.

감사반은 평동 2차산단을 관통하는 KTX 노선건설 계획에 산단 부지 2만5천여㎡가 완충녹지로 편입돼 사업차질이 우려된다는 광주시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완충녹지 규정을 완화토록 유도했다.

또 한전이 광주지역 산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전기공급설비 설치과정에서 업체들과 협의 없이 수급지점을 실제 사용장소에 못미치는 곳에 일방적으로 선정, 추가설비 비용을 기업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내용을 밝혀내기도 했다.

감사반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광주시 수완지구 풍영정천 건천화(乾川化) 문제를 적극 중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영산강 지류로 폭 70~80m 가량인 풍영정천의 유량이 감소해 건천화가 우려된다는 수완지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 하천 유지용수 운용기금(60억원), 관로보수비(15억원)를 포함해 모두 75억원을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부담, 하천수를 공급토록 중재한 것이다.

이밖에 감사반은 광주시 시민감사관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빛고을 실버타운 공사현장, 금남로 지하상가 등지에서 공동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민참여형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티베트 난민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전국 대학생자원봉사 협의회와 '티벳 난민과 함께하는 록빠(Rogpa)' 주최로 열린 평화 티베트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12일 오후 인사동 거리에서 폭력에 쓰러지는 티베트 어린이들을 표현한 '플래시 몹(flash mob)'을 하고 있다. 플래시 몹은 특정 날짜, 시각에 주어진 행동을 동시에 하는 '번개모임'의 일종이며, '록빠'는 돕는 이, 친구라는 뜻의 티베트 말이다. /연합뉴스

AI방역 총체적 실패…보상금만 550억

40일만에 대도시 등 전국 확산… 사태 장기화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달 열흘만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과 서울·부산 등 대도시까지 번져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AI 초기 방역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태가 몇 개월안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초 전북 김제 발병 이후 고병원성 AI '양성' 확진은 모두 37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비롯해 호남, 충남·북, 부산·대구·울산 등 영남, 강원도까지 전국이 AI 영향권에 놓인 것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살처분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과거보다 크다.

2003~2004년과 2006~2007년은 각각 3개월 동안 약 530만 마리, 280만 마리가 매몰돼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등으로 각각 1천531억원, 582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올해의 경우 현재 살처분 누적 규모가 700만 마리를 웃돌아 순수한 살처분 보상금만 55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초 김제에서 AI가 터지자 발생 지점 500m만 먼저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살처분 범위를 3㎞로 넓히는 방식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 기본적으로 3㎞ 안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했던 2006~2007년에 비해 소극적 초기 대응을 택한 것이다.

발생 초기 전국 83개 재래시장, 282개 5일장과 이곳을 드나드는 소규모 수송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놓쳐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많다. /연합뉴스

1면 '고용없는 성장'서 계속

하남산단 관계자는 "공장자동화나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고용 요인이 감소된 부분도 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운영난에 빠진 일부 업체들의 구조조정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10대 그룹 72개 계열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직원수는 지난해 말 현재 43만3천983명으로 2006년에 비해 겨우 1천108명(0.26%) 늘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0.25%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계를 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단순·서비스직에 한할 뿐 제조업 일자리 창출은 여의치 못한 상태"라며 "단순한 실업대책이나 직업교육이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투자, 각종 기업정책의 불확실성 최소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2 여수박람회 성공 기원
오늘 범시민 결의대회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4년을 앞두고 13일 박람회 성공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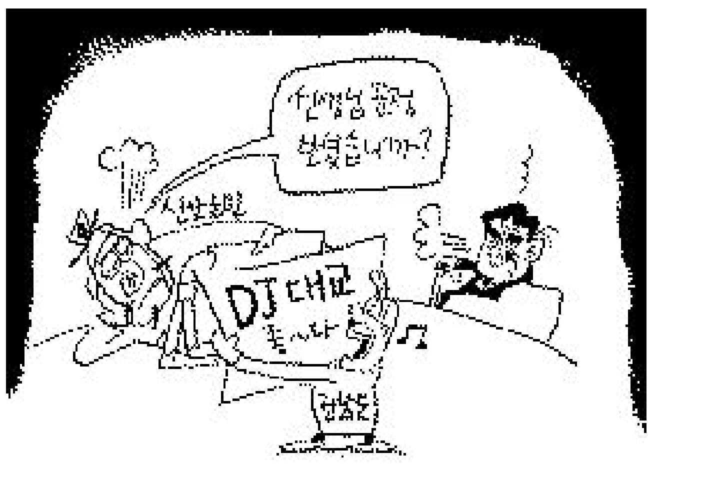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3일 오후 4시 여수시 거북공원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승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내가먼저 First 추진위원, 범도민 지원협의회 관계자, 시민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린다.

이번 결의대회 식전행사로 박람회 성공기원 거리퍼레이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결정 과정 동영상 상영, 전자현악 4중주 공연 등이 펼쳐지며 본행사로 성공개최 기원 영상메시지 및 여수르네상스 영상물 상영, 박람회기 전달, 박람회 성공개최 결의문 낭독, 성공개최 기원 풍성 날리기 등이 이어진다.

또 식후행사로는 시민들의 통기타 연주와 타악 어울마당이 펼쳐진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범시민 한마음 결의대회를 통해 개최도시 시민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수시민들의 참여와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빛日만평 - 김종두



괜한 오버로 심기 불편하게만…

전윤철 감사원장 이르면 주 중 사의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번주 중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전 원장은 그동안 여권 내에서 전 정부 임명 공직자 가운데 사퇴 일순위로 꼽혀왔으나, 지난해 10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재선임된 데다 정년이 내년 7월이고 감사원의 주요 업무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리를 고수해 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번주 중 전 원장의 사퇴 여부가 결론날 것"이라며 "조만간 사퇴할 것 같은 쪽의 기류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전 원장이 이미 직·간접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놨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르면 13일 전격 사퇴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정부 임명직 인사의 경우 새 정부에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었다"면서 "전 원장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담양·장성·화순 등 전국 755㎢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제외

담양·장성·화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5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 1998년 시작됐으며 이후 추가 지정은 있었지만 해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 가운데 3천538.7㎢를 1년 동안 재지정하고 755.3㎢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곳은 담양·장성·화순, 경기 양평, 부산 동래, 울산 울주, 경북 고령·칠곡, 경남 함안 등 9개 지역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담양, 장성, 화순지역은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 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등 투기 우려가 적다는 점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노인 자살률 매년 급증

노인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한국 노인의 자살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예외 없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를 보면 60~64세 노인의 경우 1995년 17.4명에서 2005년 48.0명으로, 65~69세 노인은 1995년 19.2명에서 2005년 62.6명으로, 70~74세 노인은 1995년 24.8명에서 2005년 74.7명으로, 75~79세 노인은 1995년 27.5명에서 2005년 89명으로 각각 늘었다. /연합뉴스

訃告

(株)瑞山 廉明坤 代表理事께서 2008年 5月 12日 (陰 4月 8日) 午前 5時 50分 病患으로 朝鮮大學校病院에서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生前의 厚意에 깊이 感謝드리며 다음과 같이 發靷과 永訣式을 擧行함을 알려드립니다。

殯 所 : 朝鮮大學校病院 葬禮式葬
發 靷 : 2008年 5月 14日 水曜日 午前 8時
장례미사 : 2008年 5月 14日 水曜日 午前 9時 30分(염주동 聖堂)
永 訣 式 : 2008年 5月 14日 水曜日 午前 11時
場 所 : 光州廣域市 光山區 長德洞 983~1 (株)瑞山 社屋1層
葬 地 : 全南 長城郡 眞原面 桑林里(家族墓地)

未亡人 金秀雅
嗣 子 廉宗學
女 廉登阮
護 喪 鄭源柱

連絡處 : 062-950-5000(會社)
062-220-3352(葬禮式葬)

(個別訃告省略, 弔花 및 賻儀를 鄭重히 謝絶합니다)

(株)瑞山 會社葬 公告

當社 廉明坤 代表理事께서 病患으로 2008年 5月 12日 午前 5時 50分에 別世하셨기에 (株)瑞山 會社葬으로 다음과 같이 擧行함을 알려드립니다。

永 訣 式 : 2008年 5月 14日 水曜日 午前 11時
場 所 : 光州廣域市 光山區 長德洞 983~1 (株)瑞山 社屋1層

葬禮委員長 : 廉珍燮
葬禮委員 : 李源培 廉奎五 廉大燮 崔正鉉 金東奇 宋泫燮

廉明坤 代表理事 葬禮委員會 委員長 廉珍燮

(株)瑞山 廉明坤 代表理事께서 病患으로 2008年 5月 12日 午前 5時 50分에 別世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株)瑞山 任職員 一同